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2]

4. 예베소서 4장 : 교회와 성도의 삶

1) 교회의 일체성과 다양성(1~16)

(1)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행하라. (1~3)

① 결손과 온유와 오래참음, 사랑, 용납, 평안

②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③ 모든 믿는 자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④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의 하나님 :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드러낸다.

(2)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7~10)

① 8절 :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쥐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 68:18)

② 올라가셨다는 것은 이전에 내리셨다는 것이고, 내리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뜻한다.

③내리셨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 위에 오르신 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에 충만하다는 것과 만물의 그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3) 하나님께서는 직분의 다양성을 허락하셨다.(11~12)

① 교회의 직분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 교사 등 다양하다.

② 직분의 다양성을 성도를 ()하게 하며 봉사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물을 세우려 할이다.

(4) 믿는 자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13~16)

②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③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져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유동치 말아야 한다.

④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을 이루어야 한다.

⑤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한다.

2)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17~32)

(1)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17~24)

① 우리의 옛 사람은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었다.

a. 마음 속에 있는 허망함으로 행한다.

b. 총명은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c.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과 욕심대로 더러운 것을 행한다.

d.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른다.

②우리의 새사람은 그리스도께 배운 바 된 모습이다.

a.예수님 안에서 모든 ()을 받았다.

b.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었다.

(2)성도의 순결한 삶을 위한 금기 사항(25~32)

①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②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③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④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⑤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⑥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⑦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3)성도의 순결한 삶을 위한 권면 사항(28~32)

①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도둑질)

②()을 세우는 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더러운 말)

③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라.(↔성령을 근심)

④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5. 에베소서 5장 : 빛 된 성도의 삶

1)하나님을 본 받는 자(1~14)

(1)성도로서 바른 삶의 권면(1~7)

①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②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③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

④음행하는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자와 같고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⑤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⑥위에 언급한 모든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2)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8~14)

①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처럼 행해야 한다.

②빛의 열매는 모든 ()과 ()과 ()에 있다.

③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④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⑤모든 은밀한 일과 책망을 받는 일들은 다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다.

⑥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에,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

2) 지혜로운 삶(15~21)

- (1) 지혜 있는 자와 같이 () 을 아끼라.
 - (2)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 (3)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 (4) 주를 찬양하며 범사에 하나님께 () 하라.
 - (5)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 아름다운 부부관계(22~33)

- (1)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해야 한다.(22~24)

 - ①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 ②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2)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목숨같이 해야 한다.(25~28)

- ①남편의 아내를 향한 사랑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
 - ②그리스도의 사랑은 교회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다.
 - ③남편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여야 한다.

④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보

- ⑤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의 몸과 같다.

(3)남자와 여자는 부부로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31~33)

①31절：“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창2:24)

②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듯 남편과 아내도 한 몸이다.

③나诽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는 나诽은 ()해야 한다.

6. 예배주제 6장 : 세상과 성도의 영적 전쟁

1) 부모와 자녀의 관계(1~4)

- (1)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2)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은 () 있는 첫 계명이다.

①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20:12)

②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5:16)

③ 십계명 제5계명은 하나님 주신 모든 율법 중에 복된 약속이 제시된 첫 번째 계명이다.

(3)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과 ()로 양육해야 한다.

2) 종과 상전의 관계(5~9)

- (1)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 (5~8)
① 눈가립만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주를 섭기듯이 섭겨야 한다.

②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해야 한다.

③ 종이나 자유인이나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것이다.

(2) 상전들도 종을 대할 때에, 주께 하듯 하되, 위협하지 말고 선대해야 한다.(9)

3) 성도의 영적 전쟁(10~20)

(1) 영적 전쟁의 준비된 삶을 살라.(10~12)

①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

② 마귀를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③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2)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13~17)

① ()의 허리띠

② ()의 호심경

③ ()의 복음이 준비한 신

④ ()의 방패

⑤ ()의 투구

⑥ ()의 검(하나님의 말씀)

(3)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라.(18~20)

① 성령 안에서 항상 깨어서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②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복음의 비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하라.

③ 바울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쇠사슬에 매인 자가 되었다.



4) 끝 인사(21~24)

(1) 두기고가 모든 일을 알려 줄 것이다.(21~22)

①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②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애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보내졌다.

(2)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경암송 : 애베소서 6:14~17